

“옛책집과 연이 있는 글쟁이”

‘공씨책방’의 주인이었던 공진석씨(1940~90)에게는 헌책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세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였다. 그의 유고집 『옛책, 그 언저리에서』(학민사, 1991)는 ‘광화문의 헌 교보문고’라고 스스로 명명했던 당시 국내 최대 헌책방 ‘공씨책방’에서 내다본 세상풍경화이다.

“헌책방에도 꽃혀 있어야 좋은 책”

고서는 고물상 제14종에 든다고 한다. 제1종이 골동품, 제12종이 금·은이다. 제14종이라면 폐품 재활용의 측면에서 “영 곳발이 없는” 물건임이 자명하다. 보물급 전적문화재를 제외하자면 말이다. 그러나 공씨는 책을 완상 내지 장식, 혹은 영혼의 양식으로 파악하지 않으므로 제1종 고물보다 제14종을 편애한다. 그의 책에 대한 관념은 딱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다. 헌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포도주도 오래 묵은 것일수록 값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중략) 호박이 늙을수록 달듯이 장도 묵을수록 맛이 날 수도 있고... 또 있죠. 고서(古書) 말입니다.”

그의 양서 선정기준도 전공을 심분 살린 형국이다. “책을 내어도 헌책방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책을 내야 한다. 좋은 책이라야만 헌책방에 꽃힐 수 있다”는 것. 증권출판인인 M출판사의 C사장도 사석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세대 뒤의 후학들이 헌책방을 뒤져서라도 꼭 갖고 싶은 책을 꺼내겠다.” 그같은 소망을 위해 C사장은 요즘 책 한 종을 내기 위해 예전에 모아둔 고미술품을 한 점씩 팔아야 하는 형편이다.

일견 회한과 절망의 정조가 지배적일 것 같지만, 『옛책, 그 언저리에서』는 헌책방 주



『옛책, 그 언저리에서』의 뒷표지. ‘책의 바다, 책의 숲’의 한 권이다. 책의 세계는 광대무비한 바다와 숲에 비견될 만하다.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헌책방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열거한 대목도 그 자부심의 한 표현이다.

「우키쿠모(浮雲)」의 작가 하야시 후미코의 고서점 경력은 그 파란만장한 생애만큼이나 기구하고도 끈질기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녀의 헌책방은 찾는 이의 발걸음이 드물어서 무척 웅색했다. 저녁만 되면 점포문을 내리고서 리어카에 헌책을 싣고 야시장에 나갔다.

달착지근한 애정시를 잘 쓰기로 이름난 구르몽을 기억하는가? 프랑스 시인 구르몽은 이른바 헌책 나가마(중개상인)였다. 불어로 ‘휘이스’라고 한다던가? 세느 강변에 죽 늘 어선 헌책방들을 기웃거리면서 어떤 눈먼 책을 사가지고 되팔아 넘길까 하고 그야말로 눈이 벌개가지고 설치고 다녔을 것이다. 음식물을 먹되 주방안은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경우가 그에게도 해당될지 모르겠다.

「무회 타이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영국의 헉슬리만큼이나 박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게 헌책 덕분이다. 그는 구르몽처럼 구지레한 짓도 하지 않았거니와 손수 헌책방을 해본 장본인도 아니다. 다만 그의 부친이 꽤 이름난 고서점 주인인 덕으로 어릴 때부터 책속에서 헤매며 자랐다.

영국에는 찰스 램과 조지 기싱이 있다. 둘 다 고명한 수필가이며 괴짜인생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병든 여동생을 돌보면서 더불어 글을 쓰며 평생을 독신으로 보낸 찰스 램. 대학교 시절 자기가 무슨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라고 거리의 창녀와 살다가 혼쫓이 난 경력이 있는 조지 기싱. 그들은 헌책방을 매일 밥먹듯 다닌 사람들이다.

조지 기싱의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수기」라는 수필집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서에 매혹되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나온다. 겨우 얻은 몇 페니의 돈을 가지고 하루종일 주린 배를 채워줄 빵집과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고서가 꽃힌 헌책방을 몇번이나 왕복하다가 결국 책방문을 미는 장면이 나온다.

이름난 출판사들의 토대이기도

우리나라는 어떤가. 「셋강」의 작가 이정환 씨의 고서점 경력은 꽤 길다. 언론인 오소백 씨도 6·26전란 후 얼마간 노상에서 고서점을 경영했다. 또 탐구당·삼성출판사·집문당 등의 출판사 주인도 다 헌책방 출신이다. 「목마와 시인」의 시인 박인환이 경영했던 ‘말리서사’라는 책방은 흔히 고서점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신간서점이었다.

출판저널

등록 제164호 / 1995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준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응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계와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뼈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스 739-8791

생명

과

전기

THE BODY ELECTRIC

인체의 재생·치유·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서